



일본 도·농 녹색교류 연수기(하)

이철학

(본회 회원, 포천 마음밭농원 대표)

82세 할머니의 노후생활이 아름답다

2월 7일, 벌써 일본연수도 이틀밖에 남지 않았다. 호텔근처에 있는 교토 생협 회의실에서 교토 부립대학교수인 宮崎猛씨로부터 "일본과 한국의 녹색관광"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일본의 총 관광산업 중에서 녹색관광의 비중이 관광객 기준으로는 15%, 대상금액 기준으로는 5%를 차지하고 있으나 갈수록 그 비중이 증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일본에서 관광농원은 대부분 숙박시설은 없이 농촌체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교토생협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농축산물의 유통측면에서 유익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생협조합원수는 교토시민의 45%에 이른다.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수입으로 일본농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더구나 일본열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교토는 제일 북쪽에 있는 홋카이도와 큐슈가 한국이나 중국과의 거리가 비슷해 농산물 수입이 많을 수밖에 없다. 앞으로도 한·중·일은 먹는 음식이 동일해 농산물이 공동으로 유통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세나라의 농산물이 경쟁과 공존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농산물 가격이 5년전보다 약 35% 인하되어 일본농업이 전환기에 처해있다.

유기농산물의 인기는 증가하나 가격이 30%이상 이 되면 유통이 어렵다고 한다. 2000년 4월부터 유기농산물지정을 종전기준보다 엄격하게 하고 있어 총 유통량의 1.5%밖에 되지 않고 있다. 3년간 화학비료와 농약사용을 하지 않은 땅을 기준으로 지정하고 있다.

야치요정(町)의 녹색관광을 배우다

야치요정(町)사무소로 이동하여 산업과장으로 부터 녹색관광에 대한 소개를 받았다. 6,200명에 1,700세대가 살며 65세이상 인구가 23%나 되는 안감의 세계적 산지로 유명한 곳이다. 1985년 옷감생산이 한창 호황일 때 미래를 염려하여 녹색교류를 시작하였다고 한다. 町이 중심이 되어 농가소득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 부러웠다. 우리나라에서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자체와 농협과 농민이 힘을 합해 도농교류를 적극추진하였으면 좋겠다. 정이 중심이 되어 도시민이 와서 묵을 수 있는 숙박시설(어제났던"에텔사사유리")을 짓고 그림그리기, 자운영축제등으로 도시민들에게 고향 재발견운동을 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체제형 시민농원인 "후로이텐야츠쵸"를 보았다.

1세대당 300평부지에 28㎡건물로 되어있는데 총 60가족이 머물수 있게 되어있다. 연간 임대료로 276,000원을 낸다고 한다. 도시민들이 금, 토, 일을 보낸다고 하니 말 그대로 세컨드하우스 인셈이다.

시민농원 입구에 농민들과 도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교류 센터가 자리잡고 있었다. 지역주민과 입주한 도시민에게 무료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티켓을 40장씩 나누어주어 교류센터에서 상호교류를 유도하고 있다.

우리나라 현실에는 아직 이른 시설이지만 꼭 있어야만 될 시설로 생각된다.

빠듯하게 시모노세끼항에 도착하여 출국수속을



마치고 승선하였다. 흔들리는 배위에서 이별주를 마시면서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입국수속을 마치고 부산항에 도착해보니 뜻하지 않게 강춘성 협회장이 마중 나오셨다. 개척자적인 사명으로 도농 녹색교류를 꽃피워 농촌을 살려보자는 말씀을 듣고 아쉬운 악수를 나누었다.

도·농 녹색관광 발전을 위한 제언

기행문을 마치면서 6년간의 관광농원운영경험과 일본견학을 참고로 하여 녹색관광발전을 위한 의견을 제시해 본다.

첫째, 농가의 소득이 대전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농가소득이 전제되지 않는 도농교류는 의미가 없다. 도시민도 위해야 하겠지만, 훈훈한 농심을 이유로 뒤흠다끼리나 하고 쓰레기나 치우는 녹색관광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일본처럼 1박 2식을 전제로 농촌체험료도 받아 실질적인 소득이 되도록 농협이나 농림부, 사회단체가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둘째, 자연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투자는 최소로 하여야 하겠다. 유원지나 관광지에 인접한 지역은 마을단위로 하더라도, 평범한 마을은 10km 내외의 면 지역단위로 거점농가 중심으로 녹색관광 사업을 추진할 것을 농림부와 농협에 적극 제안한다. 관광농원이나 농가도 가급적 추가투자는 최소한으로 억제하여야 하겠다. 예를 들어 야외시설도 눈썰매장보다는 눈을 얼음썰매장으로 만들고 수영장대신에 눈에 물을 가두어 물장난 칠 수 있는 야외공간을 만드는 것이 농촌체험에 적합할 것이다. 농사는 가급적이면 토종동식물을 공해없이 재배하



▲ 다다미방과 일본 전통음식, 일본의 민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여, 생산과정을 도시민이 직접 보면 볼수록 비싼 가격으로라도 직거래를 하고 싶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셋째, 면이나 농협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해 본다. 대규모시설을 만들어 전시행정을 하지말고 투자는 적게하면서 농가소득을 향상시킬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기 바란다. 교육이나 홍보등 뒤에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다. 우선 관심이 있고 여건이 되어있는 농가끼리 프로그램으로 연결이 되도록 노력해주어 점에서 선으로, 선에서 면으로 녹색관광이 단계적으로 추진되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이렇게 될 때 자연히 지역전체의 활성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소농중심으로 도농 녹색교류를 통해 어려움에 빠진 농촌과 농민을 살리겠다는 강춘성 회장의 열정에 적극적인 동감을 표시하며, 그 뜻이 조속히 실천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연수를 마련해 주신 강춘성 회장님, 최동주 사무처장님 알뜰살뜰 보살펴주신 미가연의 홍월표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님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드리며 글을 마칩니다.☺